

한국광학기기협회 2007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 임원 선임(증원) 및 협회 홈페이지 활용 극대화 방안 논의 -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이중구)의 2007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7일 오전 11시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본 협회의 이중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난해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웠으나 올해는 미국경제가 안정되고 수출이 탄력 받으면 두 자리 수 이상 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협회와 회원사가 이에 대비하여 더욱 협력을 도모하여 전체 광학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에 이어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0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의 건(감사 보고),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의결의 건, 2006년도 잉여금 처분(안) 의결의 건,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 의결의 건, 기타 안건으로 임원 선임(증원) 건 등이다.

2006년도 사업보고에서 협회 및 회원현황, 주요 사업이 보고 됐으며, 결산 보고에서는 결산 총괄표, 당기수지총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표, 2006년도 예산결산 대비표를 제출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사항은 협회 임원 증원을 비롯하여 협회 홈페이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업그레이드 방안과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협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탁희 상근부회장은 “협회의 회원사가 증가함에 따라 임원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5명인 부회장은 6명으로, 9명인 이사는 11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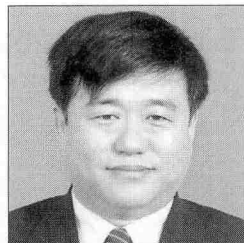
이밖에 사무국에서는 세부적인 기획 및 검토과정을 거쳐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방안과, 2006년도 한해 사무국 직원의 사업추진성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지급건 등에 관해 논의했다.



▶ 한국광학기기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한국전광(주)의 채진석 대표



▶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사에 선임된 (주)디오스텍의 한부영 대표



▶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사에 선임된 에스엔유프리시전(주)의 박희재 대표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07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7일 오전 11시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14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한국광학기기협회 임원 명단 (임체명·가나다순)

회장	이중구
삼성테크윈(주)	
부회장	문영기
(주)삼양옵틱스	우석형
(주)신도리코	성규동
(주)이오테크닉스	이병극
(주)캐리마	채진석
한국전광(주)	
이사	
(주)디오스텍	한부영
부원광학(주)	박형기
(주)산주	김기철
에스엔유프리시전(주)	박희재
(주)이오시스템	이원승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김대곤
하나기술(주)	김도열
한국후지제록스(주)	정광은
해성옵틱스(주)	이을성
현대포토닉스	황윤호
감사	
(주)한광옵토	노원복

한국광학기기협회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 2007년 사업 예산 확정 및 임원 선임(증원) -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20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열렸다.

한 국광학기기협회(회장·이중구)의 제20차 정기총회가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열렸다.

총회는 이중구 회장의 개회 선언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가 200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결,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06년도 잉여금 처분(안), 임원선임(증원), 200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중구 회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4.5%대 경제성장이 있었으나 기업의 내수 의존도의 심화 등으로 인해 회원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힘들었다”고 회고하고 “2007년도는 미국경제가 안정되고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 두 자리 수 이상의 경제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협회 및 회원사가 이에 대비

하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뜻 깊은 것은 지난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협회창립 20년 만에 정밀광학산업 기술로드맵을 완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광학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협회 사무국 임직원들의 노고와 회원사들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본 협회 이탁희 부회장은 2006년도 협회의 사업보고를 통해 전년도에 회원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총 20개사로 이중 정회원이 9개사, 특별회원이 11개사이고 임의탈퇴와 제명업체가 총 11개사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보고에서는 산업기술로드맵 수립에 관한 추진사항에서부터 활용방안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정밀광학렌즈 및 광학박막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4차년도 사업추진 실적, 소형카메라 광학시스템 성능평가 방



▶2006년도 사업보고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이종구 회장



▶이택희 상근부회장의 진행으로 협회 사업보고가 있었다.



▶감사보고를 하고 있는 한광옵토의 노원복 대표



▶이원승 전회장의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이 협회 및 회원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했다.

법의 표준화 사업,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 국내의 전시사업, 광학관련 표준화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회원사 경쟁력 제고지원과 관련하여 광학기사 및 기능사제도 폐지, 환진법관련 토너카트리지 시범품목에서 제외 품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도개선 등에 관해 협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경남지역 광학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진 2007년도 사업계획에서 이택희 부회장은 “올해 협회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밀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과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강화, 국내의 전시사업 지원 확대,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잡고 세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도에는 광학산업기술기반 확충을 위해 상용광학 카메라의 편심측정 방법의 표준화 사업을 비롯하여 정밀광학 렌즈 및 광학박막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광학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올해 3월 한국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PMA 2007’ 등 정부지원을 받는 해외 전시회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업종별 실무협의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공동연구과제 도출 및 업계 정보교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종별 현안문제를 도출하여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중국 등 외국 광학업체와의 상호방문을 통한 기술교류를 추진 및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광학전시회 공동참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광학관련 유력한 해외자료의 번역 및 책자발간을 비롯하여 협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광산업 정보제공 및 회원사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된 한국전광(주) 채진석 사장을 비롯하여 신규 이사로 각각 선임된 (주)디오스텍 한부영 사장과 에스엔유프리시전(주)의 박희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임원으로 선임해주신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임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